

## 한전공대, 개교 1년 만에 존립 위기

한전 적자 25조 규모 자구안 마련  
산자부 장관 "출연금 전면 재검토"  
정상적인 학사운영 어려울수도  
전남도, 전남의 위기 될까 우려  
민주당 "한전공대 탄압 규탄" 성명



나주 혁신도시내 한국에너지공대 전경. 정부와 여당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전 적자로 인한 출연금 축소 주장 등이 제기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경쟁력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한전공대의 핵심 역할이 흔들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국내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가 '정치 요금'이 된 전기료 인상 문제에 휩싸이면서 개교 1년여 만에 존립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한전의 자구안 마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금 축소 목소리가 나오면서, 통합할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지역균형발전뿐 아니라 에너지 분야에 있어 세계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전공대가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나주 혁신도시를 비롯해 8.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등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 미래 성장동력으로써 글로벌 에너지 경쟁력을 확보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중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전남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광주·전남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전공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이어, 한전의 사상 최악의 적자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금을 축소하거나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식의 주장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광주·전남 정치권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전의 눈덩이 적자 대책을 묻는 의원 질의에 "한전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한전공대(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 '국회가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통해 결정한 한전공대의 존폐를 누가 산업부장관에게 주었냐고 반발했다.

한전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724억원을 한전공대에 출연했고, 올해도 1588억원을 내야만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 최근 한전이 밝힌 자구안에 출연금 축소 등의 내용은 없었지만, 이창양 장관의 발언 등을 감안할 때 관련 협의가 언제든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한전 사상 최악의 경영 위기는 전기요금 인상 약속을 계속 미뤘은 정부·여당의 잘못이 큰데도 한전의 정당한 출연금을 문제 삼아 한전 공대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대체적인 시각

이다. 전남도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대전환 시대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혁신 교육의 필요성, 첨단과학 및 에너지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인재 양성 기관 필요성 등의 이유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협업해 공공형 특수대학 형태로 한전공대가 설립됐다는 입장이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오는 2031년까지 매년 1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대학 발전기금으로 출연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도 이 같은 점을 들어 "윤석열 정부의 한국에너지공대 탄압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민주적인 입법절차를 거쳐 결정된 일"이라며 "한전공대는 공기업 자구책 마련을 위한 '재산'이 아니라 수백명의 학생과 연구자들이 연구와 학습에 매진하고 있는 공동체"라며 한국에너지공대 탄압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캠페인과 재생에너지 전환장 부족 등으로 어느 때보다 에너지 기술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만큼 한전공대의 필요성이 큰데

도, 미래에 대한 기술과 인력 투자를 줄이려는 근시안적 정책을 추진하는 데 따른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 국가의 미래 전략적 요충지인 한전공대를 흔들려는 건 자신들의 무능을 정치적으로 돌파하려는 꼼수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 오늘 결정

전기 'kWh당 7~8원 ↑' 유력

정부·여당은 15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어 2분기(4~6월)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인상 폭은 kWh(킬로와트시)당 7~8원이 될 전망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4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내일 당정협의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폭에 따라 한국전력의 적자가 어느 정도로 해소되는지 최종 체크할 것"이라며 "인상 폭은 kWh당 7원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kWh당 10원 이상의 '두 자릿수 인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여당이 당정협의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면 한전 이사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산업부 장관 고시로 전기요금 인상 절차가 마무리된다.

각 가정과 업소, 산업체에는 오는 16일부터 인상된 전기요금이 적용된다.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이 45일 가량 지연된 셈이지만, 이번에 인상된 전기요금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인상 요금의 적용 시점은 산업부 장관 고시 후 다음 날부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尹, 19~21일 G7회의 참석  
한·미·일 정상회담도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대통령실이 14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의 후반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1일이 유력하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확대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것"이라며 이 같은 일정을 공개했다.

한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와 관련, 김 차장은 "미국, 일본 등 핵심 우방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한 양자 외교를 다자 외교의 장으로 확장하는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히로시마에 머무는 2박 3일 동안 G7 정상회의 회원국 및 초청국 정상들과 다수의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중 한미일 정상회담이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김 차장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공동 위기에 대한 대응과 전략적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미일 정상 간에 북한 미사일 정보에 대해 새로운 합의 사항을 도출하기보다는 상호 조율한 내용을 3국이 각각 발표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회상으로 참석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그의 히로시마행 계획에 변동이 없다고 미국 정부가 확인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지난 7일 한일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기시다 총리와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군 공항 이전 무안군민 설득 나서 ▶2면

흔들리는 대동정신 - 분열 막을 구심점 절실 ▶6면

제68회 호남예술제 성악·현악 입상자 ▶17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 2023 CREW

## 광주창업개포터즈 페스티벌

### 모집기간 '23.05.15.(월) ~ '23.05.26.(금)

**2023 광주창업페스티벌**

행사기간 : 2023. 11. 2. ~ 11. 3.  
 행사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관  
 행사규모 : 투자사 100개사, 스타트업 200개사  
 행사주최 : 광주광역시  
 행사주관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테크노파크, 김대중컨벤션센터

**프로그램**

-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 비즈니스 밋업
- 투자자/창업자 부스, 창업홍보관
- 글로벌 콘퍼런스, 투자유치 IR, AI 해커톤

**행사 크루(서포터즈) 모집**

모집인원 : 40명(창업에 관심있는 대학생, 예비/스타트업, 투자사 관계자)  
 모집기간 : 2023. 5. 15.(월) - 5. 26.(금)  
 활동기간 : 2023. 6. - 11.  
 활동혜택

- 프로그램을 누구보다 잘 배르게 참여할 수 있는 특권
- 각종 사전행사 우선 초대
- 활동 우수자 시상 및 활동 지원금 지급

접수방법 :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접수  
 문의처 :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창업페스티벌 담당자 T.062-364-9141